

2 ● 석유화학단지 미장공에서 발생한 간질성폐질환

성별	남성	나이	70세	직종	미장공	직업관련성	높음
----	----	----	-----	----	-----	-------	----

1 개 요

근로자 ○○○은 석유화학단지 미장공(정비원)으로 1978년부터 1997년까지 보일러, 히터, 열교환기, 장치물의 배관, 보온 및 건물 수리지원을 수행하며 19년 동안 근무하였다. 2009년 간질성폐질환을 진단받았고 2010년 사망하였다.

2 작업환경

○○○은 일반직 보조공으로 입사하여 미장공의 직무를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보조공(래바(Labor)라고 불림)으로 기능공이 하는 일을 보조하였다. 미장작업이 있을 때에는 미장작업을 수행하였지만 없을 때는 터파기, 배수로 청소, 콘크리트 파쇄 및 제관작업의 보조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. 동료 근로자들은 미장공이 목공, 제관공, 보온공의 보조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.

3 의학적 소견

○○○은 상병 진단 전까지 흡연하여 흡연력은 50갑년으로 추정된다. 2009년 말에서 일하던 도중 숨이차서 병원에 내원하여 정밀검사를 받고 간질성 폐질환을 진단 받았다. 외래를 통하여 경구용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치료를 받던 중 2011년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고 응급실 내원 4일 만에 사망하였다.

4 고찰 및 결론

미만성 간질성 폐질환은 200가지가 넘는 질병단위로 이루어져있으며 이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무기분진(석면폐증, 규폐증), 유기분진(과민성 폐렴), 약물, 감염, 자가면역질환 등 다양하다. 업무력과 작업환경을 통하여 추정하여 보면, ○○○의 간질성폐질환은 15년 이상의 석면이나 실리카와 같은 분진, 촉매로 사용한 니켈과 같은 금속 등의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.